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을 위한 협조문

안녕하십니까?

평소 농업·농촌 발전에 힘써주시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님!

2019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풍요와 행운을 상징하는 황금돼지의 해라고 합니다. 새해에도 바라시는 모든 일이 뜻대로 이뤄지기를 기원합니다.

정부는 작년 3.20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부칙을 개정하여 적법화를 희망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간소화 신청서를 접수받고 9월 27일까지 이행계획서를 제출토록 하여 적법화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작년 추석 연휴 때 휴일도 반납한 채 축산농가 한 분 한 분의 농장을 방문하여 이행계획서 작성을 지원하고 접수해 주신 지방자치단체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한 축산 농가들의 의지가 확인된 만큼 정부도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작년 7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축산단체 44개 건의사항 중 37개 과제를 수용 또는 수정반영하여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발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이행계획서 접수 과정에서 축산농가의 애로사항을 감안해 즉량없이 즉량계획만 있어도 접수가 가능하도록 개선함으로써 이행계획서 접수율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작년 12월에는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대한건축사협회, 농협경제지주, 축산환경관리원 대표들이 모여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을 위한 즉량, 설계 등 신속한 행정지원도 약속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정부 합동 점검반을 주기적으로 운영해 현장의 문제는 현장에서 해결하고, 축산농가에 대한 자금지원과 현장 적법화 컨설팅 지원도 지속적으로 펼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님!

축산농가의 적법화를 가속화할 수 있는 동력이 필요합니다.

축산농가가 법 테두리 내에서 지역사회와 환경에 주는 영향을 줄이면서 안정적인 축산업을 지속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어느 때보다 필요합니다.

첫째, 적법화에 필요한 이행기간을 부여받은 농가가 기한 내에 적법화를 완료할 수 있도록 농가별로 진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하여 주시고, 적법화 독려 문자도 지속적으로 발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난 7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37개 제도개선 과제는 적극적으로 법령을 해석하여 이행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 현장의 불합리한 사항이나 애로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정부에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자체 ‘무허가 축사 적법화 T/F’ 팀장을 부단체장으로 필히 지정하여 지자체 담당부서 간 협력을 강화해 주시고, 지역축협과도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축산농가의 적법화를 적극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과정에서 담당공무원이 적극 행정을 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당부 드리며, 담당공무원에 대한 격려도 아낌없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적법화의 목적이 무허가 축사의 제도권 편입을 통해 가축분뇨와 악취의 적정관리,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지속가능한 축산업 육성이라는 점을 담당자들에게 인식시켜 주시고, 적법화 노력을 지속적으로 이끌어 나가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이번 기회에 모든 축사가 법 테두리 안에서 운영되어 국민에게 사랑받는 축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힘을 보태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1월 21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환경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이개호 이 개 호 조명래 조명래 김현미 김 현 미 김부겸 김부겸 노영욱 노영욱